

## ‘조선팝’ 국악, 날다



크로스오버로 변화를 준 국악이 대중들의 큰 사랑을 받고 있다. 왼쪽부터 '대취타'를 발표한 'Agust D'(BTS 슈가)·국악밴드 '경로이탈'·'조선팝스타' 우승자 김산옥.

“덕분에 우리 소리가 이리 멋지고 아름답다는 걸 알았어요”, “지구에 유일한 장르를 노래하는 그룹, 조선팝이 세계적인 명성을 얻는 장르가 되길 기대합니다.”

지난 7일 방송된 jtbc 국악 경연 프로그램 ‘풍류대장’ 해비메탈 원곡을 조선팝 스타일로 재해석한 서도밴드의 ‘매일 매일 기다려’ 무대가 시청자와 심사위원들을 흠뻑했다. 유튜브 영상은 하루만에 조회수 11만회를 넘어섰고 댓글창에는 출연자들을 응원하는 댓글이 이어졌다.

지난해까지 TV 예능의 다수를 차지하던 트로트 열풍이 이제 국악으로 옮겨왔다. KBS가 특집으로 방영한 ‘조선팝 에게인’과 ‘조선팝, 드랍 더 비트’ 이후 국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방송사마다 퓨전 국악 오디션과 경연 프로그램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MBN의 ‘조선팝스타’는 발라드, 록 등 다양한 장르와 국악의 크로스오버로 글로벌한 퓨전 국악 오디션 프로그램을 지향하며 3개월간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았고, 9월부터 방영중인 jtbc의 ‘풍류대장’은 해외 공연 스타, 국악 콩쿠르 수상자 등 다양한 경력의 국악인들의 참여해 독창적인 크로스오버를 시도하며 국악의 대중화를 이끌고 있다.

1% 아래의 시청률을 벗어나지 못했던 기존 국악 프로그램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 시청자들

방송가, 트로트 이어 국악 열풍 이날치 ‘범 내려온다’로 날개 독창적 콘텐츠 결합한 ‘K뮤직’ 대중문화의 주류 진입 가능성 MZ세대 인식 변화로 소비 확대

콘텐츠 양산·스타 발굴 이어져야

은 타 장르와의 크로스오버로 변화를 준 국악의 새로운 모습이 연일 때로되고 이를 두고 ‘조선팝’, ‘조선합’, ‘국악팝’ 등 신조어까지 생겨났다.

드문드문 이어져왔던 국악과 대중음악의 조합은 지난해 한국관광공사의 홍보영상에 등장한 이남지밴드의 ‘범 내려온다’로 날개를 달았다. 이후 ‘잠비나이’, ‘고래야’, ‘악단광칠’ 등 전통음악에 대중음악을 접목한 팀들의 중앙무대 등장 이 두드러졌다. BTS(방탄소년단) 멤버 슈가가 지난해 5월 ‘Agust D’라는 활동명으로 발표한 ‘대취타’도 국악의 세계화에 날개를 달아줬다.

국악인들의 유명세도 국악의 대중화에 한몫

을 담당한다. ‘국악계의 이남지’로 불리는 이희문, ‘MZ세대 소리꾼’으로 평가받는 강진 출신 김준수, ‘국악 신동’으로 주목 받았던 정음 출신 유태평양, ‘피아노 치는 소리꾼’ 광주 출신 고영열, ‘조선팝스타’에서 우승을 차지한 구례 출신 김산옥 등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미스트롯’으로 일약 스타덤에 오른 진도 출신 송가인이나 양지은, 홍지윤, 김다현, 김태연 등도 ‘국악인 가수’로 떠오르며 국악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데 일조했다.

배국남 대중문화평론가는 “‘조선팝스타’ ‘풍류대장’은 주변부에 머물던 국악의 대중문화 주류 진입 가능성을 끌어올리고 대중음악과 국악의 크로스오버, 퓨전 국악을 통해 국악은 전공자만의 음악이 아닌 대중이 일상에서 즐길 수 있는 음악이라는 인식 변화를 이끌었다”며 “대중문화의 가장 강력한 소비층인 MZ세대의 국악에 대한 인식 변화와 소비 확대 역시 국악의 TV 방송 활성화에 한몫하고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그는 “완성도 높은 국악 콘텐츠 양산과 창의적인 젊은 국악 스타 발굴, 국악에 대한 대중의 인식 개선과 협소한 국악 시장의 확대가 뒤따라야 국악 프로그램 열기가 더욱 고조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보람 기자 boram@kwangju.co.kr

## 역대급 ‘불수능’

영어 1등급 지난해의 반토막... 수학 문·이과 격차 컸다

수능 전과목 만점자 1명

올해 치러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국어·수학·영어 모두 어려웠던 역대급 ‘불수능’이었다.

〈관련기사 7면〉

문제가 어려울수록 높아지는 표준점수가 국어와 수학 모두 지난해보다 각각 5점, 10점 상승했고, 절대평가로 치러지는 영어 1등급 비율은 지난해의 반토막 수준이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지난달 18일 치러진 2022학년도 수능 채점 결과를 9일 발표했다.

영역별 표준점수 최고점을 보면 국어 149점, 수학은 147점이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국어는 5점 상승했고, 수학은 수학 가형·나형보다

10점 상승했다. 표준점수 최고점은 문제가 어려우면 높게 나타난다. 올해 국어와 수학이 지난해보다 어렵게 출제됐음을 알 수 있다. 수능 전과목 만점자는 1명으로 지난해 6명에서 대폭 감소했다.

수험생들에게는 10일 학교나 시험지구 교육청을 통해 성적통지표가 배부된다. 다만 수능 생명과학 II 응시자들은 평가원을 상대로 집행정지 가져본 신청이 제기된 상태라 다른 응시자들과 달리 10일 이후에 성적이 확정될 예정이다.

한편, 2022학년도 수능에 응시한 수험생은 44만 8138명으로 재학생은 31만8693명, 졸업생과 검정고시 합격자 등은 12만9445명이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 ‘청렴도’ 광주시, 5등급 → 3등급 개선

전남도는 1단계 올라 3등급으로

광주교육청 3·전남교육청 4등급

국민권익위원회의 올해 청렴도 평가에서 광주시와 전남도가 모두 3등급을 받았다. 1~5등급으로 매겨지는 평가에서 광주교육청은 3등급, 전남도교육청은 4등급을 기록했다. 광주·전남 기초단체 중에선 나주시와 고흥군, 무안군, 신안군, 완도군, 광주 북구가 하위권인 4등급을 받았고, 순천시와 장흥군, 진도군이 5등급을 기록해 청렴도가 가장 취약한 지자체로 기록됐다.

9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내놓은 2021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결과에 따르면, 광주시는 종합청렴도에서 지난해보다 2단계 올라선 3등급을 기록했다. 외부청렴도에서 1단계 오른 3등급, 내부 청렴도에서 지난해와 같은 4등급을 받았다. 전남도 역시 종합청렴도에서 3등급을 받았다. 지난해보다 1단계 올랐다. 전남도는 민원인 등 외부인이 평가한 외부청렴도에서 지난해보다 2단계 오른 2등급을 얻었고 내부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한 내부청렴도는 지난해와 같은 4등급을 받았다.

코로나 신규확진 7000명 대 연일 최다 ▶2면

복스 - ‘이 약 한번 잡썬봐!’ ‘질병의 지도’ ▶14·15면

고향 팀 KIA로 올라? 나성범에 쏠린 눈 ▶18면

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은 종합청렴도에서 각각 3등급, 4등급을 기록했다. 광주교육청은 지난해와 종합청렴도 등급이 같았고, 외부청렴도는 3등급, 내부청렴도는 2등급을 받았다. 전남도교육청은 외부청렴도와 내부청렴도에서 각각 3등급, 4등급을 기록했다. 광주 5개 자치구 가운데선 동구, 서구, 광산구 그리고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서 광양시, 여수시, 강진군, 곡성군, 담양군, 보성군, 영광군, 영암군, 해남군이 종합청렴도 2등급을 받아 비교적 청렴도가 우수한 지자체로 꼽혔다.

권익위의 청렴도 평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교육청, 공직유관기관 등 모두 592개 기관을 대상으로 했다. 설문조사 결과(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를 가중합산)에 부패사건 발생 현황 감점을 적용해 청렴도를 산출한다. 설문조사는 지역주민, 학부모, 민원인, 공무원 등 20만6306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67년  
민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1]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HELLO! GWANGJU  
2022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문화가 예술이 되고  
예술이 여행이 되는 도시,  
광주에서 만나요!



김대중컨벤션센터  
KIMDAEJUNG  
CONVENTION  
CENTER



월봉서원  
WOLBONG  
SEOWON



사직공원전망대  
SAJIK PARK  
OBERVATORY